

2026 병오년 안동권씨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 성대하게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가 주최하는 “2026 병오년 안동권씨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권문(權門)과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 1, 2층을 꽉 메운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은 3.1 절로 봄 날씨처럼 따뜻하였으며 시장출마예상자, 도의원 출마예상자, 시의원 출마예상자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입장객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각계각층에서 보내 온 대명화환 70여 개가 진열, 행사를 축하하기도 했다.

행사장안에는 식전행사로 남녀 5인조가 대형 북을 두드리면서 신나게 춤을 추어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본 행사에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권기원, 신정옥 두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권철환 회장이 개회선언을 하였다. 권 회장은 아래 위 한복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참석한 권문 인사들을 소개하였다. 권재주 원로원의 의장을 비롯하여 권주연 고문, 권기호 권중덕 원로원부위원장, 권중근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기수 권기택 권순정 수석부회장, 권오국 전 안동항교 전교, 권유주 성공관유도회 안동지부 회장, 권오익 대중회 안동사무국장, 권현중 부회장 공파회장, 권오길 정조공파회장, 권순복 전 정조공파회장, 권대형 안동농협조합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권기욱 지회장협의회회장, 권동현 총무협의회회장, 권기섭 능곡회장, 권기룡 권사모 회장, 손복영 부녀회장, 서점에 새천년부녀봉사대장 등이다. 이어 남녀 두 사회자는 권기장 안동시장 부부, 김형동 국회의원 부부,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정보복지위원장 부부, 김의승 전 서울시 부시장 부부,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 부부, 김정동 안동김씨화수회장, 황재천 황씨종친회장,

도의원 및 시의원, 시의원출마예상자를 소개하였다.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 동안 회장 직을 맡으면서 열심히 일하였으며 올해도 24개 읍 면 동을 찾아다니면서 위로 격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안동권문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젊은 세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종친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올해 3억여 원을 들여 낡고 오래된 안동권씨 회관을 깨끗이 수리할 계획이며 지방선거도 푼푼 뭉치고 깨끗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권기장 안동시장 부부와 김형동 국회의원 부부가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서 큰 절로 세배를 한 후 권 시장은 축사에서 “안동권문은 고려 개국공신인 태사공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충신과 열사를 배출해 온 명문가로 조상님의 음덕 덕분에 우리 문중은 오늘날까지 번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여러분과 함께 문화와 예술, 산업과 관광,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과 상생의 안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권재주 의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원근 각지에서 종친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며 “종친회가 젊은 세대에서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뿌리’로 다가가도록 길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세대 간 간격이 커지고 종친 간 왕래가 예전 같지 않은 시대이므로 종친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서로의 소식을 있고 어려운 종친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작년 3월 안동에 가장 큰 산불이 발생, 큰 피해를 입어 복구중이나 아직까지도 완전복구가 되지 않아 피해조사를 더 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동발

전을 위해 권문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 및 시의원 9명을 단상위로 불러올려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 같이 큰절을 올렸다.

축사가 끝나자 권철환 회장은 안동종친회 발전에 공이 많은 권동현(안동권씨총무협의회 회장), 권갑년(총무협의회 사무국장), 안동시 김안면 딸 부녀회, 안동종친회 서후면 지회, 안동종친회 풍천면 지회 등 5명에게 공로상과 부상으로 꽃다발과 한우세트들 각각 전달했다. 또 권 회장은 권기자(서후면 이송천한티길 213-1), 김영순(예안면 밀밭길 20), 원옥영(일직면 용각길 138), 권영근(임하면 임하중마 1길 53), 권영호(안동시 단원로 69), 권영우(풍천면 풍일로 원어담길 1) 등 6명에게 효행상과 부상으로 꽃다발과 농협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밖에 권중걸(길안면 팽복 구길 19), 권남주(와룡면 부녀회장) 등 2명에게 선행상과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각각 수여, 부상으로 꽃다발과 농협상품권을 전달했다.

곧 이어 이 자리에서 김순년 여사(81. 안동시 평화동 평화윗길 121-15)는 자신이 힘들어 제작한 길이 2m, 너비 80cm 크기의 현판에 중국 서동 파의 시 적벽부를 읊, 양각 한 작품을 안동종친회에 기증하여 권철환 회장은 이 값나가는 현판을 회관에 걸어 놓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행사로 각계각층에서 보내 온 경품이 황금, 냉장고, 텔레비전, 드라이기, 히터기, 청소기, 사과즙, 벌꿀, 쌀, 라면 등 생필품 300여 점이 접수되어 추첨을 한 결과 영애의 1등상을 안동종친회가 차지한 황금 1돈(시가 1백만원)을 권혁모씨(안동시 용상화수회 부회장)가 수상했다.

행사가 끝나자 각 읍 면 동별로 분산, 점심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변화의 시대, 신중년의 생존 공식 ‘학습 민첩성’에 주목하라

시대의 격변기, 불변의 상수(常數)는 ‘배움의 속도’다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장/36세 북아공파)



문자답합니다. 지루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는 호기심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입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는 늘 돕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득도다 조(得道多助)의 실천이자,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시대의 격변기, 불변의 상수(常數)는 ‘배움의 속도’다 나폴레옹은 힐은 그의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성공의 임계점을 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향한 ‘열망’을 꼽았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경영학이 강조하는 ‘학습 민첩성(Learning Agility)’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중년이 생존을 넘어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갖춰야 할 불변의 상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유연하게 수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담는 행위가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과거의 관성과 싸워 이기고, 기꺼이 ‘초보자의 자리’로 내려앉는 태도의 혁명입니다. 아리 더허스는 “경쟁자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쟁 우위”라고 설교했습니다. 4060 세대에게 배움의 속도는 단순히 자기 개발의 차원을 넘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생존 방식이 됩니다.

열망과 자기 인식을 통해 ‘내면의 근육’을 키워라 학습 민첩성의 첫 번째 요소인 ‘열망’은 나폴레옹 힐이 말한 성공의 엔진과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마주할 때, 많은 이들이 ‘이 나이에 배워서 무엇하나?’라는 비판적 번수에 매몰되곤 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배움 끝에 얻게 될 ‘성장한 나의 모습’을 먼저 상상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그리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메타인지’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자신의 결정을 정직하게 파악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교육 현장에서 목격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은 대개 과거의 경력에 매몰되어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의 문이 열리고, 삶의 운(運)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자기 인식이 뒷받침될 때, 신중년의 삶은 비로소 결핍이 아닌 풍요의 연어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약점 인정으로 완성하는 ‘득도다조(得道多助)’의 경영 성공적인 학습자가 갖춘 세 번째 특징은 멈추지 않는 ‘호기심’입니다. 뛰어난 학습자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낯선 환경을 접할 때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까?’라며 자

네 번째는 ‘약점 인정하기’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철학에서 ‘자만심’은 성장의 최대 적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법을 배울 때 기꺼이 “나는 초보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학습의 끈기가 살아나고 주변의 조력을 얻기 쉬워집니다. 초보자로 돌아가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낡은 껍질을 깨는 리더의 품격입니다. 배움의 문을 여는 용기, ‘졸탁동시’로 완성하는 인생 2막 성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열망, 자기 인식, 호기심, 그리고 약점 인정이라는 네 가지 학습 민첩성을 갖춘 때, 신중년은 어떤 변화의 파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강조한 ‘마음의 태도’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회적 고립이나 세대 간의 갈등 역시 새로운 소통의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딱딱뜨려 깨는 졸탁동시(啾啄同時)의 지혜처럼, 내가 먼저 배움의 문을 열고 변화에 손을 내밀 때 단절되었던 성장의 다리가 다시 놓입니다. 40대에게는 고독을 대버리는 지혜를, 5060에게는 인생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을 선사해야 합니다. 배움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숨 쉬며 동반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동반성장합시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배움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결국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인생 자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처럼,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삶의 평안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중년의 태도가 곧 노년의 자존감을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2026 병오년 신년맞이 능곡회 웃놀이 한마당 개최

안동능곡회(陵谷會: 회장 권기섭)가 주최하는 “2026 병오년 신년맞이 능곡회 웃놀이 한마당”이 3월 7일 오후 3시 안동시 안기천로 18(대화동) 안동권씨회관 1층에서 능곡회원 및 부인회원, 능우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동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웃놀이 한마당에선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례예, 내빈소개, 축사, 웃놀이 및 상품안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기섭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웃놀이 대회에 상품이 푸짐한데 원하는 상품 한 점씩은 꼭 가져가 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철환 종친회장은 축사에서 “다른 성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안동권씨에는 젊은 청년으로 구성된 능곡회가 있어서 보물”이라고 칭찬한 후 “안동권씨 성을 받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있으면 마음을 고쳐먹고 안동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꿀 것”을 당부했다. 권오관 직전 능우회장은 축사에서 “능곡회와 능우회는 한 몸이며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능곡회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어서 고맙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어느 지방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요즘 안동지방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각종 모임에 찾아가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웃놀이 한마당에서도 권기장 안동시장 부부,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정보복지위원장 부부,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 부부, 김의승 전 서울시부시장 부부 등 시장예비후보들이 방문,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또 시의원 예비후보인 권영택(중구, 명륜, 서구동), 권기원(용상, 송천동), 권용덕(강남, 임하), 권중성(풍천, 일직, 남후, 풍산), 권기윤(육



동), 여주희(북후, 서후), 장원호(강남, 남선, 임하) 등 7명이 찾아와서 각각 인사말을 하였다.

후보자들의 인사말이 끝나자 준비된 음식들이 차례로 나와서 맛있게 먹기도 했다.

해마다 웃놀이 대회는 청, 백 팀으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올해는 회장단, 부부 팀, 금융 팀 등으로 나누어 웃놀이를 늦게까지 했다. 주최 측은 미리 자리를 뜬 능우회원에게 휴지 한 박스와 생강청 한 병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으며 늦게까지 놀았던 능곡회원들 에겐 많은 상품들이 전달되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화합과 참여로 빛난 창립 60주년 기념 및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25년도 제60차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는 2026년 3월 7일(토) 오전 10시 종친회 대 회의실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및 25년도 제60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급변 정기총회는 권봉철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병상에 누어 입원 치료 중에 있어 권경택 수석부회장의 주재하에 권영춘 총무이사의 사회로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며, 원로 이신 권기성, 권기수, 권오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권씨 전주,완주 종친회 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권경택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상에 누어 계신 권봉철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올해도 장학금 100만원과 찬조금 100만원을 기탁하신 권기성 전문위원과 매년 5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시는 권명수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찬조에 참여해준 많은 회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종친회의 건실한 재정 운영과 공개 경영 운영으로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 발전을 이루어 나가지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2025년도 결산 승인과 2026년도 예산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이어 2026년도 운영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2026년 운영계획 “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또한 임

기 만료에 따른 감사 선거가 실시되어 권경수 부회장이 신임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권혁신 현 감사는 유임되었다.

권경수 신임 감사는 투명한 예산 관리와 공정한 지출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여 회원들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 종친회 창립 60주년 행사에는 회원들의 따뜻한 후원이 이어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권원수 운영위원은 수건 70장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실용적인 선물을 제공하였고, 권혁신 현 감사는 가정용품을 전 회원에게 찬조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권경택 수석부회장과 권왕주 친목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떡을 나누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화기애애하게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은 종친회의 단합과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창립 60주년을 맞은 전주,완주종친회가 앞으로도 화합과 발전을 이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6년에도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굴하여 건실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종친회 발전과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종친회 회관에서 간소하게 준비한 음식과 다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종친회원을 대표하여 권기성 전문위원님의 건배 제의로 중식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창립 60주년 기념행 및 25년도 제60차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권영춘 전주,완주종친회 총무이사

안동권씨 추밀공파 참판공계 현조 약사 출판 기념회 개최

안동권씨 추밀공파 참판공계에서는 2026년 2월 21일(토) 전력부위공 중종 사무실에서 “참판공계 현조 약사 출판기념 및 교육” 행사를 성황리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종일 및 가족 58명이 참석하여 선조의 뜻을 기리고 가문의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였다.

행사는 권용덕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 선언에 이어 시조 태사공 및 열선조에 대한 망배로 엄숙하게 시작되었다.

이어 권영의 참판공계 회장의 인사말을 통해 참판공계 현조 약사 발간의 의의와 중종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현조 약사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고, 그간의 현조 약사 발간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교육은 참판공계 현조 약사 발간을 기념하며 마련된 자리로 감사(권영주 편집위원장)소개후 현조 약사의 편찬 배경과 주요 내용 선조들의 학덕과 공적이 상



세히 설명되었다. 참석자들은 경청하며 가문의 뿌리와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이해도를 높였으며, 질의 참여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모든 순서를 마친후 참석자들은 기념할

영을 하며 참판공계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는 참판공계의 뿌리를 되새기고 종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가문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권용덕 사무국장